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16.(화) 11:00 < 12.17.(수) 조간 > 배포 2025. 12. 16.(화)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 2025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 열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정두 (044-203-4920)
		담당자	사무관	박한기 (044-203-4927)
			사무관	안호연 (044-203-49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5년도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 공유회 개요**

1. 행사 개요

○ **(목적)** '25년 **소부장 특화단지의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우수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타지역, 기업으로 성과 확산

○ **(일시/장소)** 12.16(화) 14:00~15:00* / 청주 오스코(오송역 인근)

* 12.15~12.16일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워크숍과 연계 추진

○ **(주요 참석자) 산업공급망정책관,** 특화단지 10개* 지자체 등 약 70여명

* 1기 : 용인, 청주, 천안·아산, 전주, 창원, 2기 : 부산, 대구, 광주, 안성, 오송

2.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05′	개회	
14:05~14:20	15′	우수단지 시상 및 기념 촬영	
14:20~14:35	15′	우수 특화단지 성과 발표	1기
14:35~14:55	20′	특화단지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각 5분)	
14:55~15:10	15′	우수 특화단지 성과 발표	2기
15:10~15:30	20′	특화단지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각 5분)	
15:30~15:40	10′	폐회	